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17 호

2019 년 12 월 15 일

### - 목 차 -

#### ■ 협회 소식

1.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송년 및 새해 인사
2. UNGC Leaders Summit 2020 등록 오픈 안내
3. 통일과 SDGs 토크콘서트 안내(1/17)
4. 2019 상하이 CSR 환경·노동 세미나 결과(12/6)

#### ■ 본부 소식

1. COP 25, 177 개 기업의 과학기반목표 이니셔티브(SBTi) 동참 약속
2. COP 25, 기후 행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해양 비즈니스 발전 논의

#### ■ SDGs 소식

1. [SDGs 솔루션] 소비자가 직접 수리하는 리페어 카페 (Repair Café)

2. [Goal 5, 8, 13] 국내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 – KEB 하나은행
3. [SDG 미디어 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발전 : 토니 블레어와의 대화

#### ■ UNGC 회원 뉴스

1. [종합] 최정우 회장 “100년 기업 포스코, 글로벌 모범시민으로 거듭날 것”
2. 연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신설에 ‘코드’ 맞추는 운용사들
3. 신보-우리銀, 혁신성장기업 공동투자 활성화 협력

#### ■ CSR 뉴스

1. 2019 상하이 CSR 환경·노동 세미나 개최
2. 주중대사관, 삼성·현대차 등 '사회적책임 모범기업' 시상
3. WWF, 세계 285개 기업 파리협정에 맞춘 목표 갖춰
4. DB손보·교직원공제회·지방행정공제회 '탈석탄 금융' 선언
5. '착한 기업'에 돈 몰린다... 날개 펴는 국내 ESG 투자시장
6. 실적 안 좋아도... '사회공헌' 안 줄이겠다는 기업들

####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UNGC 신 연회비 정책 도입에 따른 연회비 청구서 발행일 변경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 협회소식

### 1.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송년 및 새해인사



**2020년 근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시한이 10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0년에도 우리 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핵심 가치인 인권·노동·환경·반부패를  
기업 운영과 전략에 내재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희망찬 근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올림

[\[자세히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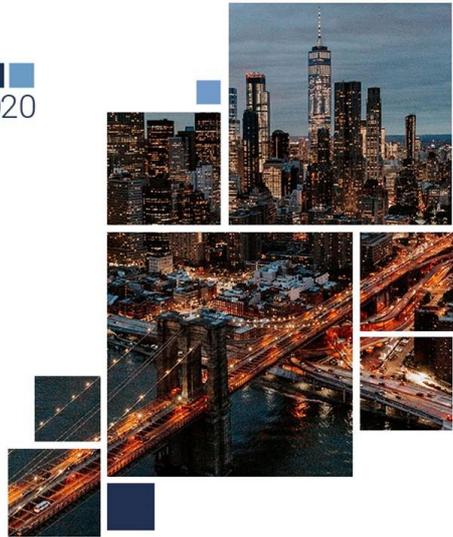
## 2. UNGC Leaders Summit 2020 등록 오픈 안내



유엔 글로벌콤팩트 출범  
**20** 주년 행사에  
초청합니다.

2020년 6월 15-16일, 뉴욕

#LeadersSummit



2020 년의 문턱에 접어들면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시한이 10 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새해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출범 20 주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뜻 깊은 새해를 맞이하여 유엔글로벌콤팩트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의 역할, 다자주의의 미래, 유엔의 가치에 대하여 전세계 회원사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인 UNGC Leaders Summit 2020 을 개최합니다. 세계 최대의 기업 지속가능성 논의의 장이자 축제가 될 Leaders Summit 은 2020 년 6 월 15 일-16 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됩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유엔 본부 총회장 및 뉴욕 최대의 컨벤션 센터인 제이콥 재비츠 센터에서 진행되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탄생지이자 글로벌 기업활동의 심장부에서의 뜻 깊은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UN 사무총장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리세 킹고**  
유엔글로벌콤팩트 CEO



**알 고어**  
미국 前 부통령



**자밀라 자밀**  
배우, 사회운동가

- **일시:** 2020년 6월 15-16일
- **장소:**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총회장, 제이콥 재비츠 센터
- **주요 일정:**

기조연설/ 환영 리셉션 / 소규모 세션 / 네트워킹 / 전시관 운영\* / 문화행사 등

\*전시관 운영: 일정 금액 후원을 통해 둘째 날 제이콥 재비츠 센터에서 자체 홍보 및 부스 운영 가능

참가 등록 웹사이트에서 UNGC Leaders Summit 2020 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2020년 1월 31일까지 얼리버드 옵션으로 티켓 할인이 가능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본 행사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사무처(☎02-749-215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UNGC Leaders Summit 2020 더 알아보기 / 얼리버드 티켓 등록\]](#)**

### 3. 통일과 SDGs 토크콘서트 안내(1/17)



국제사회와 한반도가 함께 달성해 나아가 할 공동의 목표, 통일과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통일에 있어 SDGs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 보편의 비전으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의제입니다. 또한, SDGs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회복 촉진 및 포괄적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합니다.

통일과 평화 이슈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다양한 의제들과 깊은 관련이 있고 더 나아가 SDGs 목표 이행이 평화 체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북한도 SDGs와 연계하여 2016년 '유엔전략계획 2014-2021 (UN Strategic Framework 2017-2021 DPRK)'을 세워 식량 및 영양안보, 사회개발 서비스, 복원력과 지속가능성 및 데이터와 개발관리를 포함한 4가지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한반도의 SDGs 이행에 있어 정부, 기업 및 시민단체 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통일 시대의 주체가 될 우리 청년들이 SDGs 관점으로 통일을 바라보고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한반도 발전과 평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과 비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통일과 SDGs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2020년 1월 17일(금) 13:30 - 17:00

장소: 마포구 잔다리로 6길 5 레드박스페이스 (홍대)

주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후원: 통일과 나눔, 한국리더십코리아

대상: 통일과 지속가능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 100명

**Invitation Only**

**선착순 마감입니다**

---

프로그램

시간	구분	내용
13:30 - 14:00 (30')	등록	
14:00 - 14:05 (5')	환영	인사말 - UNGC
14:05 - 14:10 (5')		인사말 - 통일과 나눔
14:10 - 15:10 (60')	세션 1 - 통일과 SDGs - 오준 제 24대 주 유엔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연사 발표
15:10 - 15:30 (20')		연사와의 대담
15:30 - 15:40 (10')	세션 2 - 통일과 SDGs, 청년과 기업의 역할 - 이은영 국제푸른나무 국장(좌장) - 기업 패널 및 청년 패널	영상 상영(TBC)
15:40 - 16:50 (70')		청년 토론
16:50 - 17:00 (10')	질문	

연사 소개 '오준' 전 UN 대사



現)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이사장

前) 제 24대 주 유엔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UN 경제사회이사회 의장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의장

신청 : 아래 신청 링크나 QR 코드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forms.gle/p5Gz2oIkyWdziWAc6>

문의: 여지원 연구원 02-749-2149 gckorea@globalcompact.kr

신청 바로가기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참가 신청]

#### 4. 2019 상하이 CSR 환경·노동 세미나 결과(12/6)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주상하이총영사관과 함께 2019년 12월 6일(금), 중국 상하이 르네상스 양츠 호텔 A 홀에서 '2019 상하이 CSR 환경 노동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중국 진출 우리나라 기업 대상으로 진행된 본 세미나는 환경과 노동을 주제로 중국 내 기업 지속가능경영 현황과 중국 진출 한국 기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화동지역 진출 대기업 및 중소기업 임직원과 정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사 및 축사, UNGC 소개 및 SDGs/CSR 동향, 중국 환경 CSR 동향, 기업과 인권노동 반부패 동향과 중국 진출 기업들의 대응 및 화동지역 한국 기업 CSR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환영사에서 최영삼 주상하이총영사관 총영사는 “본 세미나는 중국 정부에서 강조하는 환경과 우리 정부에서 강조하는 노동 분야의 CSR 활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중국사회과학원에 따르면 7 년 연속 우리나라 기업이 100 대 외자 기업 CSR 활동 평균점수 1 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고 중국인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경영의 발전 방향을 더욱더 강화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정부, 기업, 시민단체 및 학계 등이 협력하여 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모든 공급망 과정에 SDG 를 내재화시킬 때 비로소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이 올 것이다”며 지속가능경영의 실천을 위해 참석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했습니다. 이어진 발표에서 “유니레버 폴 폴먼 전 회장에 따르면 기업이 SDGs 를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비용이 행동했을 때 비용보다 더 커질 것이다”며 기업 비즈니스 전략에 SDGs 내재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의 CSR 동향과 관련하여 “기업 경영에 있어 주주 혹은 이윤 추구만 추구하는 시대는 지났으며 사회를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 곧, 기업도 강건해질 수 있는 길이다”며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경영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또한, 박석범 사무총장은 “이제는 소비자, 환경, 사회가 모두 만족하는 가치 주도의 시대로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요구 또한 변화하고 있다. 사회책임투자의 수요 증가와 해외 비재무 정보 공시 의무화 등의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기업들은 성공적인 성과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CSR 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었습니다.



두번째 발표자인 원영재 클린아시아 대표는 중국 내 환경 분야 CSR 동향에 대해 소개하며 “환경 이슈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에 따라 예방만이 대처방안이다. 2015년 신환경법을 기점으로 중국 정부의 환경 문제 대책 방안에 대한 태도가 강경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신환경법 개정에 따라 중국 환경부의 권한이 한층 강화되었고 2015년 이후 2만 개 기업들이 이 법에 따라 도산하였고 19만 개 기업들이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 한국기업도 환경적 부문과 관련하여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 213개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55%만 중국 환경규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률의 가장 큰 문제는 중국 환경 규제 제도 및 법에 대한 정보의 부재가 가장 크다”고 말하며 우리나라 기업 대상 중국의 환경 규제 법제화에 대한 정보를 교육해주는 기관과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세번째 발표자인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은 기업 인권노동반부패 글로벌 동향 및 중국 진출 기업들의 대응에 대한 발표에서 “중국 내 기업의 인권노동 이슈는 여전히 취약하지만 지난 10년간 상해 및 심천 거래소 등 ESG 공시 의무화(환경, 거버넌스 중심)와 중국 정부의 규제, 산업별 CSR 대응노력 등 지속가능성 흐름의 속도가 빠르다”며 “전 세계적으로 기업과 인권, 반부패 관련법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해외 진출 한국 기업들도 이러한 추세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인권 실사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해 경영 시스템 내에 개선노력을 내재화하고 전체적인 평가 모니터링 및 구제 프로세스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어진 화동지역 한국 기업 CSR 우수사례 발표자로 손제덕 SK하이닉스 TL은 SK하이닉스 중국 CSR 활동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손제덕 TL은 “SK가 강조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은 사회 다수 이해관계자가 구조적 해결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회적 이슈와 시민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 과정에서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다”며 “SK하이닉스는 매년 취약계층을 위한 기금 마련 및 SK하이닉스 사업장이 위치한 우시지역 중소기업 대상 친환경 사업장 컨설팅 사업 등 이런 활동을 통해, 회사와 이해관계자의 행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발표자인 흥정기 대한항공 지부장님은 대한항공의 중국 CSR 활동에 대해 소개하며 “대한항공은 중국 내 20개 도시 34개 노선을 운항하며 이에 따라 중국 전역에서 CSR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CSR 활동은 크게 나눔 경영, 식림활동, 문화사업 및 재난지역 구호 물품 사업으로 소개할 수 있으며 98년 후베이성 대홍수 재난지역 구호물품 수송을 시작으로 CSR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은 2009년도부터 지속가능보고서를 지속해서 발행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9 상하이 CSR 환경 노동 세미나'는 중국 진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확산의 중요성에 대한 공통된 논의를 이끌고 앞으로의 지속가능경영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본 세미나는 약 50여 명의 중국 내 우리나라 기업 및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과 한국 간의 비즈니스적 교류를 넘어 CSR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원문 보기\]](#)

# 본부소식

## 1. COP25, 177 개 기업의 과학기반목표 이니셔티브(SBTi) 동참 약속

2019 년 12 월 2 일부터 13 일까지 마드리드에서 열린 COP 25(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총 177 개의 기업이 과학기반목표 이니셔티브(SBTi)에 참여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야심찬 목표 설정에 동참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9 월 [유엔 기후 행동 정상 회의](#)에서 SBTi 에 참여한 기업 수의 두 배 이상의 성과를 나타냅니다.

["1.5°C 를 위한 비즈니스 앰비션-우리의 유일한 미래\(Business Ambition for 1.5°C-Our Only Future\)"](#) 캠페인의 일환으로, SBTi 에 참여한 기업들은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이하로 제한하고, 2050 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Net Zero)' 달성을 목표로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36 개국에 본사를 둔 177 개 기업은 총 36 개의 분야에서 약 570 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총 시가총액은 2 조 8 천억 달러 이상의 규모이며, 직접 배출하는 연간 온실가스는 프랑스의 연간 총 CO2 배출량에 가깝습니다.

본 기업들은 과학자들이 파리협정 목표 달성의 필수 요소로 강조한 부분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의 연관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과학기반목표 이니셔티브\(SBTi\)](#)에 참여함으로써 기후 목표 설정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177 개 기업의 SBTi 참여는 [제 25 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에서 발표되었으며, 이는 국가, 기업, 투자자, 도시 및 지역을 통합하여 2050 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Net Zero)'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이해관계자 그룹인 [기후 앰비션 동맹\(Climate Ambition Alliance\)](#)에 대한 기업의 기여를 보여줬습니다.

본 기업들은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 정책과 민간 부문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기후 행동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앰비션 루프(ambition loop)'로 알려진,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 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활동은 시장에 기후변화 행동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정부가 최신 기후 과학에 맞춰 국가자발적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와 장기 전략을 포함한 국가 기후행동 계획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1.5°C 목표에 맞춰 정책과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기업이 미래의 탄소 제로 경제에 투자할 수 있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본 소식은 유엔글로벌콤팩트,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과 유엔환경계획이 공동 주최하는 연례 ['기후를 위한 배려 고위급회담\(High-level Meeting of Caring for Climate\)](#)'의 결과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본 회담은 민간 부문 참여에 초점을 맞춘 고위 이해관계자 협의로서, 국가자발적 기여(NDC)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증진을 위해 기업의 참여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제공합니다.

SBTi 파트너 중 하나인 유엔글로벌콤팩트의 리세 킹고(Lise Kingo) 사무총장은 "우리는 역사를 올바르게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이미 사람, 기업 운영, 경제 및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며, "많은 국가들이 내년 국가 기후행동 계획 강화를 준비함에 따라 기업 지도자들은 각 국 정부가 기후 앰비션(climate ambition)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해야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기업이 활동가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5°C 의 비즈니스 앰비션" 캠페인에 새롭게 참여한 기업은 샤넬(Chanel), 테스코(Tesco), TMG Automotive, 이베리아 항공(Iberia), 이콜랩(Ecolab), 헨켈(Henkel)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패션 팩트\(Fashion Pact\)](#)를 통해 1.5°C 의 목표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한 50 개 이상의 패션 업계 기업과 유엔이 결성한 [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 자산 소유자 연합\\*\(Net Zero Asset Owner Alliance\)](#)이 본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 자산 소유자 연합(Net Zero Asset Owner Alliance) : 2050년까지 투자 포트폴리오를 '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Net Zero)'로 전환하기로 약속한 자산관리자들의 연합

[\[자세히 보기\]](#)

## 2. COP25, 기후 행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해양 비즈니스 발전 논의

COP25(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해양 기반 산업들은 기후변화가 해양 생태계의 주된 위협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명확한 경제성장경로를 구축해 기업이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net zero)'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2020 년에 개최될 UN 해양 컨퍼런스를 앞두고, 이번 COP 25 는 해양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적 기회의 순간입니다. 지속가능한 해양 생태계를 조성하고 2030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부문의 더 큰 지지가 필요하며, 현재 기울이고 있는 노력 또한 더 빠르게 확대되어야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비달 헬게슨(Vidar Helgesen) 지속가능한 해양 경제를 위한 고위급 패널(the High Level Panel for a Sustainable Ocean Economy, HLP) 특사는 "HLP 는 보다 나은 해양 정책 수립을 위한 권고사항을 발표할 것입니다. 보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해양 생태계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협력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라며 기업의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와 HLP 는 2020 UN 해양 컨퍼런스의 성공을 위해 해양 관련 이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유엔글로벌콤팩트 스페인 협회의 지원으로 이번 COP25 에서 해양을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본 세션에서 주요 기업과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 상승온도를 1.5°C 이하로 제한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해양 산업의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2050 년까지 온난화 상승폭을 1.5°C 로 제한하고 '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net-zero)'에 맞춰 기업활동 및 가치 사슬 전반의 기후행동 목표를 설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지속가능한 해양경제를 위한 고위급 패널 (the High Level Panel for Sustainable Ocean Economy, HLP)

HLP 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해양 생태계의 미래를 지향하며, 실용적인 솔루션을 제안하기 위해 2018년 9월 설립되었습니다. HLP는 14 개국 정부수반이 모이는 협의체로써 정부, 기업,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해양 경제로 빠르게 전환하기 위해 로드맵을 개발하고 범세계적 차원의 대응을 유도하고, 확대 및 가속화합니다. 현재 호주, 캐나다, 칠레, 피지, 가나,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일본, 케냐, 멕시코, 나미비아, 노르웨이, 팔라우, 포르투갈이 HLP 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HLP 에 대해 더 알아보기](#)

[\[자세히 보기\]](#)

## SDGs 소식

### 1. 소비자가 직접 수리하는 리페어 카페(Repair Café)



**리페어 카페에서는 직접 숙련된 수리공의 지도 하에 소비자가 고장 난 물건을 수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자원봉사 주최 워크샵이 열립니다.**

리페어 카페는 숙련된 수리공과 함께 고장 난 전자제품과 자전거를 수리하고 헤진 옷을 수선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공방입니다. 모임 주최자들은 수리에 필요한 다양한 재료와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공방을 거쳐 수리된 제품들의 약 70%가 성공적으로 재사용되고 있습니다. 수리비는 대부분 무료이고 이용자는 지불능력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주최자들은 이렇게 조성된 기부금으로 재료와 다과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페어 카페는 리페어 모니터(RepairMonitor)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중고품 수리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카페 이용자들을 그들의 수리 건을 카페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숙련된 봉사자들이 물건의 종류, 문제점, 수리 성공 여부, 수리 방법 등을 기록합니다. 물건을 고치지 못했다면 자원봉사자는 그 이유를 기록합니다. 리페어 모니터는 전세계의 리페어 카페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서 제조업자, 규제기관, 소비자에게 어떤 상품이 가장 자주 고장나는지, 고장이 잦은 상품을 가리는 방법에 관한 추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17 년 리페어 카페에서 가장 많이 수리된 품목은 자전거였고 커피 머신과 진공 청소기가 바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1,800 개가 넘는 리페어 카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 년 월평균 2 만여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5 만명의 이용자를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43 만개의 물품을 수리했고 30 만개의 물건이 버려져 낭비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 왜 우리는 리페어 카페에 주목해야 할까요 ?

설계에 문제가 있거나 부품 품질이 낮으면 수리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새로 사는 것이 더 싸고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결과 전자제품, 섬유 등 각종 산업에서 막대한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EU 에서만 하더라도 2016 년 한해 동안 4 천 470 만 톤의 전자 폐기물](#)이 배출되었습니다. 리페어 카페는 사람들에게 수리 기술과 도구를 제공해 낭비를 막습니다. 이로써 낡은 물건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수리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합니다.

### How the Global Goals are addressed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리페어 카페는 사람들이 새 제품을 사기보다는 고장난 물건을 수리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폐기물이 생기는 것을 막습니다. 2017 년 한해만 하더라도 전세계적으로 30 만개의 물건을 고쳤습니다.

**[원문보기]**

## 2. [Goal 5,8,13] 국내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 - KEB 하나은행



### 1. 기업 지속가능경영 이행 전략 및 현황

KEB 하나은행은 하나금융그룹의 비전인 “신뢰받고 앞서가는 글로벌 금융그룹”이 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기반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미션을 선언함으로써 시대적 요구와 변화에 적극 동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KEB 하나은행은 지속가능경영이 경쟁력의 핵심요소라고 믿고, 국제사회 윤리와 환경을 개선하고자 2007년 UN Global Compact에 가입한 이래,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4대 분야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2. SDGs 전략 및 사례

#### SDG 5 (양성평등)

KEB 하나은행은 하나금융그룹의 일원으로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 미션을 실천하고 국가적 차원의 저출산 문제 대응에 동참하며, 일·가정 양립, 여성의 경력단절 완화, 일자리 창출 등 양성평등 실천에 기여하고자 어린이집 건립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2018년부터 3년간 1,500억원 규모로 국공립 90개, 직장어린이집 10개 총 100개 설립·운영 추진으로 보육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투명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하나금융그룹 사회공헌위원회를 발족하여 그룹의 중장기 사회공헌활동 방향 및 보육사업 추진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2018년 6월 5일 저출산고령화위원회·보건복지부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8년, 1차로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앞 신청을 받아 현장 실사 및 선정심사를 거쳐 9월, 총 29개 지자체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관협력 모범이 되는 새로운 인프라 창출을 목표로 2차 신청 및 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2018년 7월 16일 근로복지공단과 체결하고, 청라, 부산, 광주를 시작으로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설립 및 운영하는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보육시설 설치 운영이 어려워 보육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우수한 여성 인력 확보 및 경력단절 극복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 SDG 8 (경제성장 / 일자리 창출)

KEB 하나은행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10 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민간기업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펀드에 출자한 첫 사례로,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자금 확보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취업역량을 향상시키는 SIB(사회성과연계채권) 프로젝트인 "해봄"에 1 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SIB 투자는 정부와 민간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수익모델까지 구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기업이 새로운 방식의 사업모델을 시도하게 되며 혁신을 이끌어내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금의 선순환을 통해 더 많은 공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수혜자인 국민의 이익은 증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은 경기도 '해봄'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SIB 투자사업 분야를 선도하고, 본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SIB 에 대한 민간 기업의 투자를 증대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성장 지원을 위하여 '하나 파워온 챌린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직중인 청년 디자이너와 디자인 역량이 필요한 사회적기업, 소셜벤처를 연결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업의 성장지원이라는 두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한편, 창업 교육부터 아이디어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검증 지원까지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파워온 챌린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31 개의 기업을 통해 122 명의 일자리가 증가하였고, 매출도 1 년사이 약 2 배가 신장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기존의 복지혜택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회적 이슈인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섹터의 기관들이 모여 각자의 역량과 솔루션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하나 파워온 임팩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기에서는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7 개의 사회혁신기업이 참여하여 맞춤형 직무를 개발하고, 직무별 고용확대를 위한 주요 이해관계자(정부기관, 기업, 당사자 등) 네트워크 결성, 발달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포용적 근무 가이드라인 개발 및 배포를 진행하였습니다. 2 기에서는 9 개의 사회혁신기업과 함께 발달장애인 강점 기반의 새로운 직무를 개발 및 지속 가능한 고용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계속 하였습니다. 47 여명의 발달장애인이 인턴을 통해 새로운 직무를 경험하였으며, 19 명은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현재까지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KEB 하나은행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 **SDG 13 (기후행동)**

KEB 하나은행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수년간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체계적인 환경경영과 그룹의 지속가능성장을 목표로 추진한 다양한 친환경 금융활동과 성과를 인정받아 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기후변화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2 년 연속(2016,2017)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를 수상하는 등, 친환경 금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리기후협약에 의거한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 2 도 시나리오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5 년과 2040 년 배출량 달성목표를 수립하였으며, 2018 년도 기준, 2025 년 목표 대비 57%, 2040 년 목표 대비 21%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달성하였습니다.

2018 년도에는 KEB 하나은행(본점)에 환경경영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ISO14001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특히 본점 근무직원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였고, 은행의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이면지 활용, 개인컵 사용, 점심시간 점등, 퇴근시 멀티탭 끄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달성 할 수 있는 부서별 실천방안을 도출하였으며, 2019 년도 중 각 부서별 자율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금융그룹의 "환경방침"을 실천을 통해 직원들이 지속적인 환경 보전 활동에 관심을 고취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의 회복력(RELIENCE)을 강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UNEP FI (유엔환경프로그램 금융섹터)의 글로벌 28 개 금융기관으로 선발되어 책임은행원칙(Responsible Banking Principle) 제정 사업에 Core Group 으로 참여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이행계획 수립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UN 지속가능목표 SDG13(기후변화대응)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About These SDGs Goals

### SDGs 세부목표 5.5은

**정치, 경제,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세계인권선언(UDHR, 1948) 제21조는 모든 이의 정치 참정권을 명시했습니다. 이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66) 제28조에서도 모든 사람이 공적인 일에 관해 직접 혹은 직접 선택한 대표를 통해 참여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한 베이징행동강령(1995)에서는 경제적 의사결정에서 여성이 거의 참여하지 못하거나, 공정하게 대표성을 확보하지 않은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남녀의 동등한 의사결정 참여가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사회 기능을 원활히 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총회(2008)에 제안한 유엔 기구 재편안 따라 발족된 유엔여성기구(2010)는 여성지위향상국(DAW)을 산하에 두어 여성 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에 SDGs도 여성의 동등한 기회보장을 추진합니다.



### SDGs 세부목표 8.2는

**고부가가치 산업 및 노동집약적 산업에 중점을 두는 것을 포함하여 산업다각화, 기술 발전, 혁신을 통해 높은 수준의 경제 생산성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주도하에 1981년 개최된 최저빈곤국에 대한 회의에서는, 1980년대 최빈국을 위한 새로운 행동계획(SNPA)을 채택하였습니다.

동 행동계획은 향후 10년간의 경제개발 방식과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있고, 제2회 최빈국에 대한 회의(UN Conference on LDCs, 1991)에서는 파리선언과 1990년대 이행방안을 채택했습니다. 파리선언은 총5가지 우선순위를 정하여 1980년대 침체를 벗어나 경제 재활성화를 목표로 하는데, 이를 위해 각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열거하였습니다.

그 중에 산업, 서비스, 과학 및 기술기반 발전,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혁신 등이 포함되어 있고 SDGs도 이를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SDGs 세부목표 9.c은

기후변화 완화 및 조기경보에 관한 인적, 제도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기후변화협약(UNFCCC, 1992) 제6조에서는 동 협약에 참여하는 당사국이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개발 이행하며 기후변화에 관한 대중 인식 제고 및 훈련과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유네스코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에 관한회의(2009)에서 본 선언(Bohn Declaration)을 채택하여 기후변화교육(CCE) 이니셔티브를 발족하고, 기후변화교육을 통해 대중의 인식제고를 추진했습니다.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한 파리기후협약에서는 기후적응행동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과 기상관측 시스템을 강화하는 칸쿤 기후적응 프레임워크(Cancun Adaptation Framework)를 발족하여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SDGs에서도 이 같은 노력에 이어 기후변화를 위한 역량 강화를 추진합니다.



### SDGs 세부목표 17.8는

최빈국을 위한 기술은행과 과학, 기술 및 혁신 역량강화 메커니즘을 완전히 운영하고, 특히 정보통신기술 (ICT)과 같은 구현기술의 활용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제 3 차 유엔 최 빈 국 회 의 (UNCLDC) 의 브뤼셀 행동계획(2001)에서는 최빈국의 기업이 낮은 수준의 기술 활용, 신기술 도입을 위한 자원의 부족, 기존 기술의 업그레이드 혹은 신기술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역량 부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유용한 정책, 규제 투명성, 시장 자율화 등을 통해 다국적 기업에서 최빈국에 기술을 이전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 행동계획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정보통신기술(ICT)과 인터넷을 포함한 신 기술 활용을 위한 현지 R&D와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설정했습니다. 뒤이어 제4차 UNLDC에서 채택한 이스탄불 행동계획(2011)에서는 동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2013년 과학, 기술, 혁신에 관한 기술 은행을 설립하여 최빈국의 연구 기관과 연구자들 간 네트워킹을 활성화하여 최빈국의 과학연구와 혁신 역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에서 2020년까지 추진되는 동 행동계획을 SDGs에서도 반영했습니다.



[원문보기]

### 3. [SDG 미디어 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발전: 토니 블레어와의 대화

기술을 통해 양질의 교육 보장하고 증오와 편견 없는 세계를 만드는 방법



<댄 토마스(Dan Thomas) 유엔글로벌콤팩트 홍보최고책임자, 토니 블레어(Tony Blair) 前 영국 총리>

유엔글로벌콤팩트는 11월 5일부터 7일간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개최된 ‘웹서밋’에 참가해 3일간 SDG 미디어 존을 운영했습니다. 7만여명의 혁신가와 기업가들이 참석한 이번 웹서밋에서는 IT 기업의 창립가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 정책결정자, 정치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글로벌 비즈니스의 새로운 시대를 구상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매 회 뉴스레터에 SDG 미디어 존에서 다뤄진 각 주제 별 토크의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발전: 토니 블레어와의 대화> 주제로 진행 된 토크는 댄 토마스(Dan Thomas) 유엔글로벌콤팩트 홍보최고책임자와 토니 블레어(Tony Blair) 전 영국 총리의 대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대화는 토니블레어 세계변화연구소의 글로벌 공약과 SDGs 중의 4 번째 목표인 교육의 중요성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토니 블레어 전 총리는 토니블레어 세계변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너레이션 글로벌(Generation Global) 캠페인을 발족했습니다. 그는 기술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모두에게 보장하고 증오와 편견 없는 세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SDGs 이행이 정부와 민간부문을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지지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토니 블레어는 “많은 이들이 아직 SDGs 의 개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SDGs 이행 경험이 쌓이고 있고 각 분야에서 SDGs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SDGs 17 개의 목표와 169 개의 세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추상적인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이 중요하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토니 블레어는 현재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술을 통해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술과 교육을 접목시키면 최빈국 아동에게 교육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으며 교육의 격차를 효과적으로 좁힐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기술을 선진국의 전유물이라고 여기는 생각은 편견일 뿐이며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이 기술을 통해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토니 블레어 전 총리는 "요르단에서 실제로 아동들이 통신 기술을 통해 다른 정체성을 가진 아동과 소통하여 타인에 대한 편견과 장벽을 허무는 것을 목격했다"며 기술을 통한 교육의 변화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 [영상보기]

## UNGC 회원뉴스

### 1. [종합] 최정우 회장 "100년 기업 포스코, 글로벌 모범시민으로 거듭날 것"



- 포스코는 지난 12월 3일 '2019 기업시민 포스코 성과공유의 장' 행사를 개최함.
- '기업시민'은 작년 7월말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취임하면서 내놓은 경영이념.
- 최회장은 '기업시민' 이념에는 기업도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경제적 이윤 창출을 넘어 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더 큰 기업가치를 창출하는 길이라는 믿음이 담겨 있다고 설명함.
- 포스코는 지난 1년 반동안 ▲동반성장 ▲청년 취·창업 지원 ▲벤처 플랫폼 구축 ▲저출산 해법 롤 모델 제시 ▲바다 숲 조성 ▲글로벌 모범시민 되기와 만들기 등의 '기업시민 6대 대표 사업'을 추진해옴.
- 최회장은 앞으로도 기업시민헌장을 본격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함.

[\[원문보기\]](#)

## 2. '스튜어드십 코드' 신설에 '코드' 맞추는 운용사들



-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를 도입한 운용사에 위탁운용 선정 가점을 부여하기로 하는 등 국내 연기금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이에 연기금의 자금을 위탁받기 위한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함.
- BNK자산운용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함. 교보약사자산운용과 사학연금은 또한 늦어도 내년 까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힘.
-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마무리 작업을 실시하고 있음. 공무원연금은 지난해부터 국내외 주식, 채권 위탁운용사 선정 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를 정성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원문보기\]](#)

### 3. 신보-우리銀, 혁신성장기업 공동투자 활성화 협력



- 12월 5일, 신용보증기금(신보)과 우리은행은 혁신성장기업의 후속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창업허브에서 혁신성장기업 데모데이를 열고 '공동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음.
- 두 기관은 이날 공동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성장가능성 높은 기업 공동발굴, 상호추천 및 공동투자 ▲상호 추천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 검토 ▲공동투자기업에 대한 IR개최 및 밸류업 서비스 지원 등을 위해 상호협력을 약속함.
- 신보는 성장가능성이 높으나 민간투자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혁신성장기업을 선정해 기업의 주식이나 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직접투자를 하고 있음.

[\[원문보기\]](#)

# CSR 뉴스

## 1. 2019 상하이 CSR 환경·노동 세미나 개최



- 12월 6일, '2019 상하이 CSR 환경·노동 세미나'는 상하이총영사관,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 코트라 상하이무역관, UN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주최로 르네상스호텔에서 개최함. 특히 상하이 화동 지역 내 대한민국 기업의 우수 CSR 사례를 공유함.
- CSR 세미나는 그간 화동지역 우리 기업들의 책임 경영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도 선도적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우수 CSR 사례를 공유했으며, 중국정부의 환경·노동부문에 기업 정책 동향 및 대응 방향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해석하는 자리를 마련함.
- 본 세미나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박석범 총장은 'CSR과 SDGs(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국제동향'에 대해, 이은경 실장은 '기업과 인권노동반부패 글로벌 동향 및 중국 진출 기업들의 대응'에 대해 강연함.

**[원문보기]**

## 2. 주중대사관, 삼성·현대차 등 '사회적책임 모범기업' 시상



- 12월 12일, 주중 한국대사관은 '2019 재중 한국 CSR 모범기업 시상 및 CSR 포럼'을 열어 삼성과 현대차그룹, LG, SK, CJ, 포스코 등의 20개 기업들이 4개부분에서 모범기업상을 수여함.
- CSR모범기업 시상식은 2015년 중국내 외국공관으로는 처음 개최한 이래 올해로 5회째로 진행함.
- 시상식에 이어 열린 포럼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객글 선임연구원과 중국사회과학원 CSR연구센터 종홍우 주임이 발표자로 참여했으며, 중국의 아이튠디엔핑,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북경한미약품의 기업사례를 공유함.

[\[원문보기\]](#)

### 3. WWF, 세계 285개 기업 파리협정에 맞춘 목표 갖춰



- 12월 16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한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5)가 폐막을 맞이하면서, 약 750개의 SBTi(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과학기반목표 이니셔티브) 참여기업 중 285개 기업이 온실가스감축목표를 2억6500만 이산화탄소 환산톤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움.
- SBTi는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지침과 방법론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기후행동을 강화하고자 2015년 세계자연기금 (WWF)와 CDP, 유엔글로벌콤팩트 (UNGC), 세계자연연구소(WRI)가 공동으로 창립한 과학기반목표 이니셔티브임.
- SBTi 참여하는 국내 기업은 DGB 금융지주와 롯데케미칼, 웅진 코웨이 등 단 3개사에 불과하지만, 탄소제로사회로 가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방향과 장기 목표 수립에 대한 국내외의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음.

[\[원문보기\]](#)

#### 4. DB손보·교직원공제회·지방행정공제회 '탈석탄 금융' 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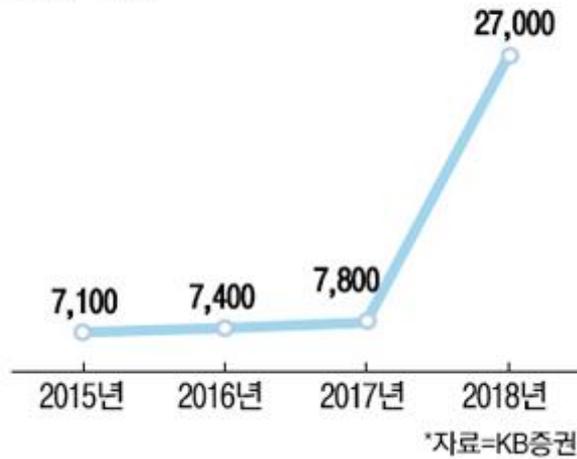


- 12월 3일, 디비(DB)손해보험과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석탄과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탈석탄 금융'을 선언함. 세 기관의 금융 운용자산(2019년 상반기 기준)을 합치면 111조4512억원 수준.
- 특히 디비손해보험의 탈석탄 금융 참여는 민간 금융사 첫 사례여서, 전체 금융권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지 주목됨.
- 새롭게 탈석탄을 선언한 3개 기관을 합쳐 국내 탈석탄 금융기관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탈석탄 금융을 선언한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을 포함하여 총 5곳임.
- 이들 기관은 "탈석탄 투자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해 금융기관이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구체적인 실천 방안"임을 인정하고 "이는 무엇보다 고객·가입자·수급자의 금융자산을 지속 가능하게 증대시키는 방안"이라고 설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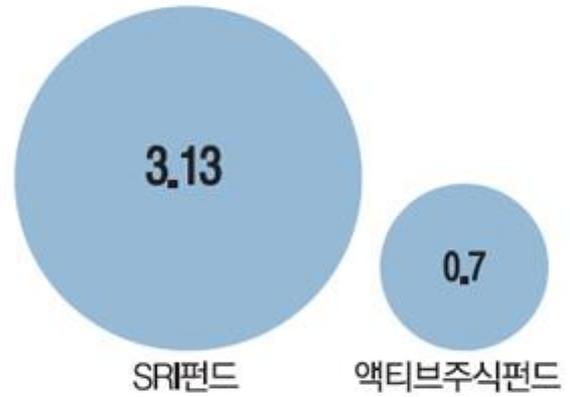
[\[원문보기\]](#)

## 5. '착한기업'에 돈 몰린다... 날개 펴는 국내 ESG 투자 시장

국내 사회책임투자자산 규모  
(단위=억원)



SRI펀드 vs 액티브펀드 수익률(단위=%)



\*11월 29일 기준, 자료=에프앤가이드

- 12월에 KB증권이 발간한 '착한 기업이 가져올 번영'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고려하는 'ESG 투자' 자금 규모가 세계적으로 30조달러까지 성장했음. 특히 2014년 이후 ESG 투자 자산 규모는 연평균 14% 증가함.
-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의 ESG 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힘입어 시장이 급속하게 커질 것으로 보임.
- 수익률 측면에서도 ESG 투자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KB증권에 따르면 벤치마크지수인 'MSCI 세계 지수'보다 'MSCI 사회책임투자 선진국지수'가 수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ESG 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책임투자(SRI) 펀드 시장 역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설정액 10억원 이상 국내 SRI 펀드(ETF 포함) 30개의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은 지난 11월 29일 기준 3.13%으로 같은 기간 국내 액티브 주식 펀드 평균 수익률인 0.70%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임.

[\[원문보기\]](#)

## 6. 실적 안 좋아도... '사회공헌' 안 줄이겠다는 기업



- 올 해 더 나은 미래가 국내 매출 상위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2020년 사회공헌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모두 경영 실적과 무관하게 예산을 유지 혹은 확대하겠다고 밝힘.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점점 강조되는 상황에서 경영 실적에 따라 사회공헌 예산을 줄이는 것은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됨.
- 이번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이나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눈에 띄게 높아졌음. 기업들은 내년도 사회공헌 사업의 주요 대상을 묻는 문항에서 '사회적경제 조직'(6곳 이하 중복 응답)을 가장 많이 꼽음.
- 내년도 '신규'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정부 복지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임.

[원문보기]

# 회원사 안내

## 1. 신규가입회원

12 월 1 일부터 12 월 15 일까지 일까지 UNGC 에 가입한 회원사는 2 곳입니다.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2. COP/COE 제출회원

12 월 1 일부터 12 월 15 일까지 8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베타니아복지재단
- 한국수력원자력(주)
- (주)씨엔커뮤니케이션
- IBK 기업은행
- 한국동서발전(주)
- 국민건강보험공단
- NH 농협은행
- 한국공항공사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첫 COP 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 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첫 COE 를 제출하고, 이후 매 2 년마다 COE 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 년 후에도 COP/COE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3. 2019 년도 UNGC 회원 연회비 청구 안내



#### 1. Select Participant or Signatory

● SIGNATORY	● PARTICIPANT	● PARTICIPANT + ACTION PLATFORMS & LEAD ELIGIBILITY
<p>Signatories actively engage at their national or regional level with the UN Global Compact. Signatories receive:</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Full access to their country-specific resources and activities.</li> <li>2. Basic access to the UN Global Compact digital platform and tools.</li> <li>3. Opportunities to engage with the Global Compact Local Network in their country or region.</li> </ol>	<p>Participants actively engage at the global level with the UN Global Compact. Participants receiv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ull access to global resources and activities.</li> <li>• Full access to their country-specific resources and activities.</li> <li>• Full access to the UN Global Compact digital platform and tools.</li> <li>• Opportunities to fully engage with the Global Compact Local Network in their country or region.</li> </ul>	<p>Participants additionally have the opportunity to engage in Action Platforms (<a href="#">learn more</a>) and thereby gain eligibility to be a UN Global Compact LEAD company.</p> <p>Use this form to select the Action Platforms you would like to engage in during 2018.</p> <p>Companies that engage in two or more Action Platforms, pass an integrity screen and submit an Advanced COP are eligible to be recognized as LEAD.</p> <p>Please note, Action Platform annual contributions are in addition to the Participant tier annual contribution.</p>

2019 년도 연회비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신(新) 연회비 정책을 기반으로 청구될 예정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는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UNGC 2030 비전 및 2020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 자발적 기여에서 의무로 바뀌는 신(新) 연회비 정책을 도입하고, 본부와 한국협회 간의 재정 배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UNGC 의 모든 영리 회원사는 참여 정도에 따라 참여레벨(Participant 또는 Signatory) 선택 및 매출액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추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2019 년 1/4, 2/4, 3/4 분기, 4/4 분기 청구 대상 회원]

##### 가. UNGC 본부 및 한국협회 참여회원 (1/4, 2/4, 3/4 분기, 4/4 분기 납부대상)

- 참여레벨 (Participant / Signatory) 선택 완료 기업
- 연매출 500 억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기관

##### 나. UNGC 본부 참여회원 (한국협회 미참여 회원)

- 참여레벨 (Participant/Signatory) 선택 완료 기업

<1/4 분기, 2/4 분기 연회비 청구 대상기업>

경기도시공사, 한국남부발전, BGF 리테일, 이화다이아몬드공업, 한국조폐공사, JB 금융지주,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연구재단, 구미시청, 울산광역시 남구청,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한국벤처투자,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산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 극지연구소, 카라반이에스, 한국전자인증, 리인터내셔널, 마콜컨설팅그룹, 동명전기, 바이오제네틱스, 제니컴, 디씨티오토, 비엘에치아쿠아텍, 제주관광공사,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미술등록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카이스트경영대학, 신한대학교, 늘푸른직업재활원, 환경실천연합회, 환경재단, 경실련, 메디피스, 일반유스아카데미, 한국품질재단, 밀알심장재단, 사회복지법인열매나눔재단, 당감종합사회복지관

<3/4 분기 연회비 청구 대상기업>

CJ 제일제당, 인천국제공항공사, 코웨이, 케이티에스테이트, 롯데제과, SK 이노베이션,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서스틴베스트, 나인, 인피니티컨설팅, 델타이엔씨, 원광대학교, 한국국제봉사기구(사), 유엔한국협회,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사)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충북대학교

<4/4 분기 연회비 청구 대상기업>

LG 디스플레이, SK 주식회사, DGB 금융지주, 한화건설, 티비에이치글로벌, 삼덕통상(주), 스완커뮤니케이션, 씨엔커뮤니케이션, (주)에프엠브이디, 세일인터내셔널, 아진트랜스,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한국인권재단, 베타니아복지재단, 진해장애인복지관, (재)동천,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한국투명성기구, 푸른나무청예단,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사)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아시아정당국제회의사무국, 국민연금공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레벨 선택을 안내 받은 매출액 500 억 이상 기업은

참여레벨 (Participant 또는 Signatory)을 조속히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레벨 선택 관련 기한 변경 또는 의견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

Email. [gckorea@globalcompact.kr](mailto:gckorea@globalcompact.kr)

####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http://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 또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mailto: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http://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